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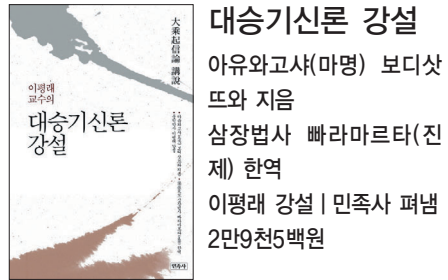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12 ~ 2/18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화내지 않는 43가지 습관	마스노 슌요	담앤북스
2	알고 보면 괜찮은	마가	불광출판사	7	능가경 강의	남희근	부기
3	뛰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웅화	8	어느 불교우신론자의 고백	스티븐 베일리	공리
4	공 - 공을 깨닫는 27가지 길	홍타	민족사	9	삶에서 깨어나기	타라 브랙	불광출판사
5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10	치유하는 유식 읽기	서광	공간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누구나 여래 씨앗 가졌다



대승기신론 강설
아유와고사(마명) 보디사
뜨와 지음
삼장법사 바라마르타(진
제) 한역
이평래 강설 | 민족사 펴냄
2만9천5백원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사람의 마음
에 대하여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라는 의미
이다. 그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 부처의 마
음이다’라는 선종의 사상적 바탕을 이루는
여래장(如來藏)사상을 말한다. 30년 넘게
여래장사상을 연구해온 이평래(사진·충남
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현재 원효학연구
원장) 교수가 (대승기신론 강설)을 펴냈다.
(대승기신론)은 불교 교리와 실천 및 수행
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대승불교의 대표적 논서이다.

일반적으로 (대승기신론)은 마명(馬鳴)
보디 𑖀 가 짓고, 진제(眞諦) 삼장이 번
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평래
교수는 진제 삼장이 짓고, 마명에게 가탁
(假託)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승기신론)은 중관사상과 유식사상을
한데 녹여 총체적으로 구성된 저술이다.
불교경전 가운데 가장 철학적, 종교적, 논
리적, 이론적, 체계적, 윤리적, 실천적인 것
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교학의 백과사전이
라고 말할 수 있다.

(대승기신론)의 ‘대승’은 소승에 대한
대승이 아니라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사람의 본성이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진여
(眞如)라고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탐(貪)·
진(瞋)·치(癡) 3독(毒)의 번뇌에 더럽혀져
서 추한 존재로 있는 것이다. 즉 대승의 실
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대승의 실체
가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래장’ 인
것이다. 그러나 그 추한 마음이 깨닫는 것
이다. 오뉴월의 푸른 땃강이 잘 익어서 동
지선달의 빨간 홍시가 되는 것과 같은 이
치이다. 마음 밖에 깨달음의 주체가 없애
는 말이다. 그래서 중생심에는 미망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인데, 이 힘이 ‘승’이다. ‘승’이란 수승
수단, 운반수단 등 운반하는 힘을 가리킨
다. 중생의 마음에 중생을 미망에서 깨달
음으로 운반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것이 대승의 ‘승’이다.



여래장사상의 (대승기신론) 강설
대승의 정체 ‘마음’ 두 가지로 고찰
심진여문·심생멸문
이해 쉽게 의역, 용해, 도표 활용

마음이 무한한 가능성, 능력, 곧 덕성을
갖추고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이며,
특히 (대승기신론)은 인간의 본성을 낙천
적, 긍정적, 능동적, 실천적, 청정성으로 보
고 있다. 불교는 (神)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마음의 본성이 맑고 깨끗하
다는 ‘자성정정심’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자성정정심인 것을 깨닫는
것이 ‘기신(起信)’이다.

자기의 마음이 ‘여래장’, ‘불성(佛性)’
인 것을 이성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음
의 본성은 분석이나 분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붓다의 깨달
음을 역으로 추론하여, 그 존재를 알 수 있
다. 고따마 싯다르타 태자가 ‘여래장’, ‘불
성’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면 아무리 수행
을 열심히 했다고 해도 부처가 될 수 없었
을 것이다. 기왓장을 숯에 아무리 갈아
도 거울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대승기신론)은 이렇게 인간이라면 누
구나 여래의 씨앗을 지니고 있음을 주체적
으로 밝히면서 수행을 하면 언젠가는 부처
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논서이다.

이번 책은 대승의 정의를 밝히기 위해
‘한마음’의 존재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첫째, ‘마음 그대로의 모습
을 관찰하는 부분’, 즉 ‘심진여문(心眞如
門)’이며, 둘째는 ‘마음의 현상적인 모습을
관찰하는 부분’, 즉 ‘심생멸문(心生滅門)’
이다. 전자는 부처의 세계이며, 깨달음의

세계이고, 자성정정의 마음이며, 완성된 인
간의 마음이고, 후자는 시간의 변화를 타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번뇌의 세계이다.
(대승기신론)은 일심(一心)을 붓다와 중생,
극락과 사바, 열반과 윤회, 진여와 무명의
두 얼굴로 전개하여 인간의 이상세계와 현
실세계를 절묘하게 파헤쳤으며, 이 두 문
안에서, 마음의 세계가 각각 모든 세간적인
현상으로부터 출세간적인 진리에 이르는
여러 가지 마음의 존재방식을 포섭한다. 왜
냐하면, 이 두 문은 본디 서로 떨어질 수 없
는 동일한 마음의 존재양상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승기신론 강설)은 저자가 (대승
기신론)을 강의하고 해설한 것을 모아 엮
은 것이다. 그래서 강설 형식을 취했다. 한
글로 번역하고 강설을 한 다음, 독자의 이
해를 돕기 위해 불교용어 해설을 덧붙였
다. 이번 책의 특징은 첫째, 누구나 이해하
기 쉽게 의역을 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의 (대승기신론) 번역서는 대부분이 축어
역이다. 축어역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
긴 하지만, 독자들이 어려운 한자용어를
소화하기에 힘들고 또한 뜻이 분명하게 드
러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물론 의역도 문제가 전
혀 없는 것은 아니다. 번역자의 주관적인
관점이 원문의 뜻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래서 번역문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
면 바로 대조할 수 있도록 원문을 함께 실
었다. 둘째, 친절환 용어 해설로 내용의 이
해를 돕고 있다. 셋째, 도표를 통해 (대승
기신론)의 세계를 알기 쉽게 열어놓았다.

넷째, 인간의 내면세계를 긍정적으로 서술
하여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준다. 다섯째,
중요 개념은 산스크리트어를 대입해 의미
를 확실하게 표현했다. 여섯째, 여래장사
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법신설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하게 강설했다. 일곱째, 마
음이 곧 여래장, 불성, 중생이 곧 여래임을
확실하게 일깨워준다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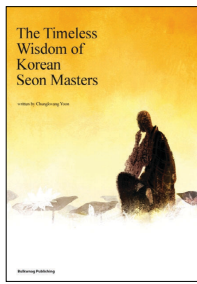
책을 펴낸 민족사는 이평래 박사의 (대
승기신론 강설) 출간을 기념하여 3월 7일
부터 불교여성개발원 강의실에서 ‘대승기
신론 특강’을 연다. 전문강좌로 주 1회(금
요일 저녁 7시~9시), 40주(10개월) 강의이
며, 80%이상 수강자에게는 대승기신론 강
의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모집인원은 25
명이며, 수강료는 3개월분 15만 원이다.
(문의:02-732-2403~4)

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영어로 읽는 ‘고승열전’

The Timeless Wisdom of
Korean Seon Master

글·윤청광 | 그림·견동한 | 번역·박희원
제작·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불광출판사 펴냄
1만3천원



원효, 무학, 사명,
경허, 한암, 만공, 혜
월, 한영, 효봉, 고암.
한국불교사의 위대한
선지식 열 분의 이야
기가 영어로 묶어져
나왔다. (고승열전)
의 저자인 윤청광이
집필했다. 영어로 보는 ‘고승열전’이다.



위의 이름들은 1700년의 한국불교사
에서 저마다 분명한 자리를 지키고 또 분
명한 흔적을 남기고 간 선지식들이다. 아마
도 자신을 ‘불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위의 불명은 설명이 필요 없을 한국불교의
‘교재’들이다. 하지만 우리의 율타리 밖에
선 과연 그들의 이름이 얼마나 알려져 있
을까.

20세기 들어 불교에 대한 서구인의 관심
이 높아졌다. 근대 초에 일본과 중국의 선
승들이 불교의 세계관을 널리 알려 서구인
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졌고, 근대에 들어
서 달라이 라마와 티벳한 등이 평화운동과

영성운동을 통해 불교가 사회에 어떻게 기
여할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준 덕분이다.
이에 따라 불교의 역사에서 뛰어난 족적
을 남긴 스님들의 이야기도 서구에서 많이
알려져 감동과 성찰을 전해왔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스님들의 이야기는 많이 소
개된 반면 한국 스님들의 이야기는 거의
알려지지 않아 그간 아쉬움이 적지 않았
다. 이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외국 독자
들에게 한국불교 스님들의 생애와 가르침
을 전하기 위해 영문 책을 발간했다.
동굴에서 마신 물 한 모금으로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음을 깨달았던 원효 스님, 조
선 건국의 큰 역할을 하신 무학 스님, 승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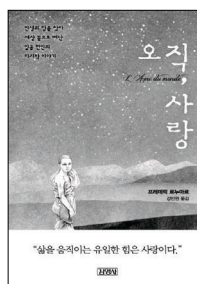
을 일으켜 왜구 침탈로부터 민초들을 지킨
사명 스님을 비롯하여, 한국 근대 불교를
일인자 경허 스님 등 모두 열 분의 스님이
살아낸 빛나는 이야기다. 스님들의 일화
속에는 불교 교유의 가르침뿐 아니라, 그
불교를 받아들여 제 나름대로 소화한 한국
인의 독특한 세계관도 녹아들어 있다. 그
덕분에 스님들의 일화는 한국에서 스며든
불교가 어떻게 나름의 독특하고 번뜩이는
가르침을 일구어왔는지를 알려주는 교과
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책은 한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독창성을 알리는 계
기가 될 것이다.

박재원 기자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소중한 잠언

오직, 사랑

프레데릭 르누아르 지음 | 강만원 옮김
김영사 펴냄 | 1만2천원



무엇을 위해 이 세
상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일곱 현인들이 밝
히는 세상의 지혜와
오묘한 인생의 철학
을 담은 책 프레데
릭 르누아르의 에세이다.

네덜란드 철학자부터 몽골의 무녀까지,
가톨릭 수사부터 이슬람 수피까지, 어느
날 갑자기 일곱 현인에게 정체를 알 수 없

는 계시가 들린다. “수천 킬로미터 너머 하
얀 산, 티베트로 떠나라.” 누가, 어떤 힘이
그들을 세상의 끝에서 만나게 했을까? 그
들이 이상의 모든 이들에게 남기고자 한
삶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무려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 티베트의 ‘롤랑카’ 사원
에 도착한 현인들은 그곳에서 티베트 라마
와 더불어 서로 지혜를 교환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전수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
받는다. 그들은 라마의 환생인 소년 텐진
과 네덜란드 철학자의 딸 나티아에게 7일
에 걸쳐 ‘보편 지혜’에 관한 영적인 교훈인
‘지혜의 일곱 열쇠’를 들려준다. 동양의
소년 텐진과 서양의 소녀 나티아 사이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의 한계를 넘
어, 살아가는 방식과 사랑하는 방법을 일
깨우고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소중한 인생
잠언, 다양하고 신비로운 종교와 철학 속
에센스를 모아 엮은 황금 같은 깨달음의
우화다.

현대 프랑스의 대표 철학자이며 종교사
학자 프레데릭 르누아르가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영성’의 의미에 대해 가슴 설레는
메시지이다. 저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
서 다음에 도래할, 세상을 바꿀 혁명은 ‘영
적 혁명’이라고 예견했다. 그동안 인간의
삶을 지배하던 정치와 종교의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는 열쇠로 영성의 힘을 이야기하
며, 개별 종교의 형식적인 교리의 틀을 깨
드리고 인간의 가치 있는 정신세계를 새롭
게 제시하기 위해 단순하면서 구체적인 길
을 제시한다.

박재원 기자

성현과 범부가 함께 닦는 성불의 지름길!
“염불은 가장 쉬우면서도 모든 범문을 뛰어넘는다!”

상중하 모든 근기가 두루 이익을 보고,
착수하기 쉽고 성공을 높으며,
힘 적게 들고 효과 빠르며,
만 가지 공덕을 원만히 성취하는 수행법

제불보살과 역대 조사들이 권한 원통(圓通)의 묘법
《염불수행대전》
주세규 회집 | 46배판 | 양장 | 2도 | 808쪽 | 38,000원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중

대승경전과 정토종 및 선종 조사의 염불법론 총망라
흥미진진하고도 상세한 주석으로 염불에 대한 확신과 방향 제시!

이 책은 ‘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보살님, 역대 고승, 거사님들의 말씀들을 모아서 해설하거나 주석(註釋)을 단, 무려 808쪽에 달하는 이른바 ‘벽돌책’이다. 염불, 그중에서도 주로 부처님의 이름을 생각하거나 부르는 명명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고승들의 귀한 말씀들을 회집(會集)해 놓았다. 방대한 주석에는 살며 사랑하고, 염불하며 깨달아가는 구도자들의 생활 속의 수행지침과 감동적인 예화, 역사적인 영험록이 가득하다.

출판 및 법공양(특별법인) 문의 02-2632-8739 |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한불샵!
02)2004-8216

☎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더라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적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면) 8cm]

기반방식 내부

- 메모리폼
- 폴리우레탄

불교인이려면 누구나 깐giban

나만의 완성세계 깐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깐giban

성불할때까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영원한 깐giban

깐giban 완전 신장과 완벽 안정과 나만의 완성세계 깐giban